지상백고좌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라”

속리산 산자락에 접어들자 내리던 비가 그쳐서 천지간(天地間)이 맑게 씻은 느낌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佛法)이 상주(常住)하는 도량답게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는 지나칠 관문이 많았다.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는 현판이 붙은 산문(山門)과 금강문(金剛門)을 지나서 우람한 위용(威容)의 사천왕상이 지키는 천왕문을 거친 뒤에야 법주사 경내에 닿았다. 천왕문을 지나니 정면으로는 팔상전(八相殿)이, 왼쪽으로는 금동미륵불이 서 있었다. 경내에는 중생이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천상도(天上道)가 펼쳐져 있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나 올려다보는 게 숭고미(崇高美)의 본령(本領)이어서 필자는 숙연한 마음으로 팔상전에 참배해야 했다.

팔상전은 한국 최고(最高)이자 최고(最古)의 5층 목탑이다. 벽면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그려져 있다.

필자는 거대한 크기의 미륵불로 걸음을 옮겼다. 미륵불을 최초로 조성한 것은 신라의 진표 율사이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축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금동미륵대불을 몰수해갔다. 3만여 명의 불자의 원력으로 2002년 금동미륵대불은 다시 조성될 수 있었다.

팔상전의 뒤로 국보 5호인 쌍사자 석등(雙獅子石燈)이 서 있다. 두 마리의 사자가 두 다리로 서고 두 팔로 받치고 있는 것은 8각의 화사석(火舍石)이었다. 그 석등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무명의 세상을 환하게 밝혔을 것이다. 속리산의 법등(法燈)은 천년 동안 꺼지지 않고 혜명(慧命)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지명 대종사는… 혜정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범어사 강원에서 고봉 대강백, 각성 대강백, 혼해 대강백에게 경전을 배우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에서 종교학 철학박사를 졸업했다. 법주사 주지를 재임하면서 청동미륵불 개금불사를 진행했으며, 매월 1회 미륵존불 철야기도, 10선 실천운동, 경전 공부, 홈페이지에 접하기 쉬운 불교 이야기 올리기 등을 시도했다. 초서체 한문으로 된 전체 주련을 정자 한자로 정리하고, 한글 번역을 하는 등 불교 쉽게 전하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제9, 12,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동국학원 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주사 조실로서 후학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원시불교의 선정설 연구〉, 〈천태의 불이철학〉, 〈하이데거와 히사마쓰 신이치의 무사상 비교〉, 〈만공의 선사상연구〉,〈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큰 죽음의 법신〉, 〈똥 속의 과일 줍기〉, 〈그것만 내려 놓아라〉, 〈한권으로 읽는 불교 교리〉 등 저서 및 논문을 상재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염화실(拈華室)에 다다르니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가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를 내려서 건넨 뒤 지명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필자가 불자에게 삶의 지남(指南)이 될 말씀을 부탁드리자 지명 스님이 비로소 입을 뗐다.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끝없는 과거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출세 내지는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배역이 주어집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어려서는 아들딸의 역할을, 젊어서는 부부의 역할을, 늙어서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하고, 사회관계에서는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등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소화하려면 우정과 사랑과 신의라는 연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부처님께서는 ‘천상이나 지상에서 오직 나 홀로 높다’고 설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나로서 충분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실천하기 어려운 보살도 수행자의 배역을 맡아서 충실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항상 그대로 있어야만 지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중국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즉,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의 세계’라는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스님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주인공의 삶에 대해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지도자들은 반목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화합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게 스님의 견해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배역 맡게 돼
주인 되려면 보살도 수행자役 충실해야
眞我, 항상 그대로 있어야 지치지 않아

道人 알아보는 법, 사람 섬기는지 확인
해탈 이룬 사람, 저절로 자비심 구현해
방생의 자비 실천하는 사람이 곧 ‘道人’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원력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독교 광신도이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진영의 트집만 잡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명 스님은 종단의 후학(後學)들에게는 발심(發心)을 요구했다.

“수행자의 길은 큰 발심이 없는 이에게는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발심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안락을 주겠다는 발원입니다. 참선, 경학, 포교, 염불 기도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골라야 합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근기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는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교화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진작 보다 깊이 있는 포교 방법을 닦아 둘 걸’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참선을 중시하는 만큼 명상지도를 활용하거나, 시대변화에 상담심리와 명상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포교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종단 발전 위한 당부

지명 스님은 불교계가 현대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율을 마련해야 한다. 이판승과 사판승이 나눠져 있듯이 채식하는 스님과 육식하는 스님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처님 재세 당시 수행전통을 지키고 있는 남방불교 수행자들은 육식을 하고 있다. 일본불교도 종파에 따라 다르지만 육식을 허용하고 있다. 계율을 시대에 맞게 정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교계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종단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추천한 뒤 최종적으로 추첨하는 방안도 선거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게 간추려야 한다. 가령, 불자들이 염불수행을 할 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염송(念誦)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살도 정신의 의미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님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스님들은 소수이고 다수는 청빈하게 생활하고 있다. 물질적 가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스님들을 조명하고, 나아가서는 지족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이 종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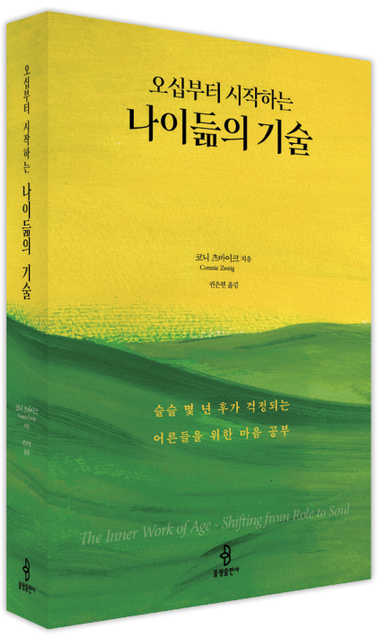
스님은 이어 조계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선,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계종의 1년 예산은 대형 교회 1년 예산보다 작습니다. 명산에 위치한 명찰들이 많다 보니 외형적으로만 부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찰이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검증 가능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님들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고도 사찰이 운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법과 의례 의식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쉽고도 간명하게 현대화해야 합니다.”

13면에 계속

삶은 길고, 후회는 짧아야 한다!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길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인생의 완성기를 맞이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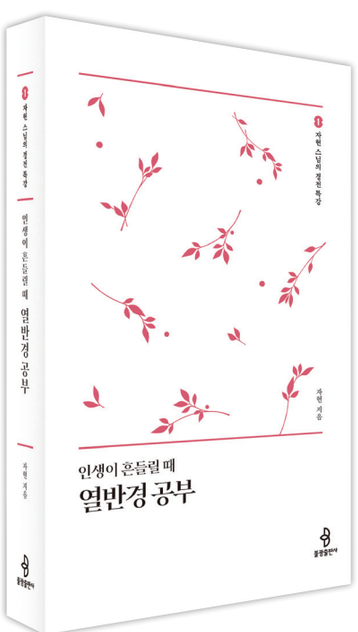
2022 노틸러스북어워드 ‘의식적인 노화 부문’ 금상
2021 베스트북어워드 ‘건강·노화 부문’ 최우수도서
2021 베스트인디북어워드 ‘노화·노인학 부문’ 최우수도서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듦의 기술
슬슬 몇 년 후가 걱정되는
어른들을 위한 마음 공부
코니 츠바이크 지음 | 권은현 옮김 | 624쪽 | 3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균형감 잃은 인생에 중심이 필요할 때,
마지막 순간,
붓다가 전한 지혜에 주목하라!

1 자현 스님의 경전 특강



여천 무비 스님 추천!

일체중생 실유불성
一切衆生 悉有佛性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인류사의 명언이 탄생한 배경과
사상의 핵심을 톺아보는
자현 스님의 열반경 강의!

인생이 흔들릴 때
열반경 공부
자현 지음 | 328쪽 | 양장본(올컬러) | 22,000원